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연구소

2025. 4. 30.

통권 제101호

발행인 | 황옥경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

I 저출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서의 경제적 부담

저출생의 원인은 하나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요인(양육비용 부담, 일자리 등), 사회적 요인(교육, 성차별, 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 문화·가치관적인 요인(가치관·인식의 변화 등), 인구학적 요인(혼인율 하락·초혼연령 상승,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등)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¹⁾ 저출생 현상을 심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인구학적 측면에서 혼인율의 하락, 초혼 연령의 상승은 저출생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저출생의 심화는 결혼과 관련된 요인뿐만 아니라 유배우 가구 출산율의 하락 혹은 무자녀 가구의 증가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됨.²⁾

- ▶ 무자녀 가구의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OECD 다수 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임.³⁾
- ▶ 한편, 정부의 지속적인 양육비용 부담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임.

저출생을 유발하는 경제적 부담은 단순히 양육비용으로 인한 부담 증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양육비용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파생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의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음.

이에 자녀가 없는 무자녀 가구와 비교하여,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모들은 어떤 소비지출에 제약을 갖게 되는 것인지, 반대로 무자녀 가구의 성인은 어떤 항목에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직면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의 실체를 고찰해보고자 함.

- ▶ 반면, 무자녀 가구가 예상하는 양육비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양육비용 부담이 자녀 출산의 회피 혹은 지연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숙고해보고자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영유아 가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KICCE 소비실태조사 2024 (최효미·김나영·조미라·김태우·장경희·김병철, 2024)」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또한 본고는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님.

1) 관계부처 합동(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p.12~19.

2) 이철희(2019).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한국경제의분석, 25(1). pp.37~77.; 계봉오·유삼현·최슬기(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4). pp.71~92.

3) OECD Family Database, Fertility indicators, SF.2.5 Childlessness, https://www.oecd.org/els/family/SF_2-5-Childlessness.pdf (인출일: 2024. 9. 5.).

II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실태 비교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377만5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의 355만원에 비해 27만5천원가량 높음. 하지만, 양육비용을 제외한 영유아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금액⁴⁾은 226만9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

영유아자녀 가구의 양육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150만6천원에 달하며, 이는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부모)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음.

- ▶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비목별 지출액을 살펴보면, 식비가 103만8천원(27.5%)으로 가장 많은 지출액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육/보육비가 47만9천원(12.7%), 보험료가 43만2천원(11.4%) 순으로 높았음.
- ▶ 양육비용을 제외한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의 생활비 지출액은 식비 69만4천원(30.6%), 보험 29만8천원(13.1%), 주거/관리비 29만5천원(13.0%) 순으로, 전체 생활비 지출액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임.
- ▶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식비 82만4천원(23.2%), 여가 및 문화생활비 49만9천원(14.1%), 기기/집기 33만7천원(9.5%) 순으로, 영유아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패턴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임.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영유아자녀 가구의 경우 전체 생활비 기준 36만8천원(9.7%)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13만1천원이 적을 뿐 아니라,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비는 15만4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의 여가 및 문화생활비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 ▶ 무자녀 가구는 여가 및 문화생활비, 기기/집기⁵⁾ 등의 비목에 보다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데 반해, 영유아자녀 가구는 교육/보육비, 보험 등의 비목에서 높은 지출을 보임.
- ▶ 기기/집기류의 경우에도 무자녀 가구는 월평균 33만7천원의 지출을 하고 있으나,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의 지출액은 4만8천원에 불과함.
- ▶ 이 외에도 피복비(무자녀 30만7천원 >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 10만원), 보건/의료비(무자녀 18만6천원 >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 5만5천원), 개인유지비(무자녀 15만8천원 >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 8만6천원) 등의 비목에서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의 소비 지출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
- ▶ 반면,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의 경우 교통비(무자녀 24만7천원 <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 27만4천원), 통신비(무자녀 16만원 < 영유아자녀 가구 성인 17만7천원) 지출액이 무자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양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단위의 지출 비목인 주거/관리비, 반려동물 및 상품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에도 영유아자녀 가구에 비해 무자녀 가구에서 지출 수준이 높음.

- ▶ 주거/관리비의 경우 영유아자녀 가구는 월평균 29만5천원을 지출하는데 반해, 무자녀 가구는 31만5천원을 지출하여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세부 비목별로는 영유아자녀 가구의 경우 관리비 및 수도 광열비 등의 지출액이 24만5천원으로 무자녀 가구 20만7천원에 비해 높았음.
- ▶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은 영유아자녀 가구에서 5천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 자체가 매우 적은 것에 기인함. 반면, 무자녀 가구의 경우 월평균 5만1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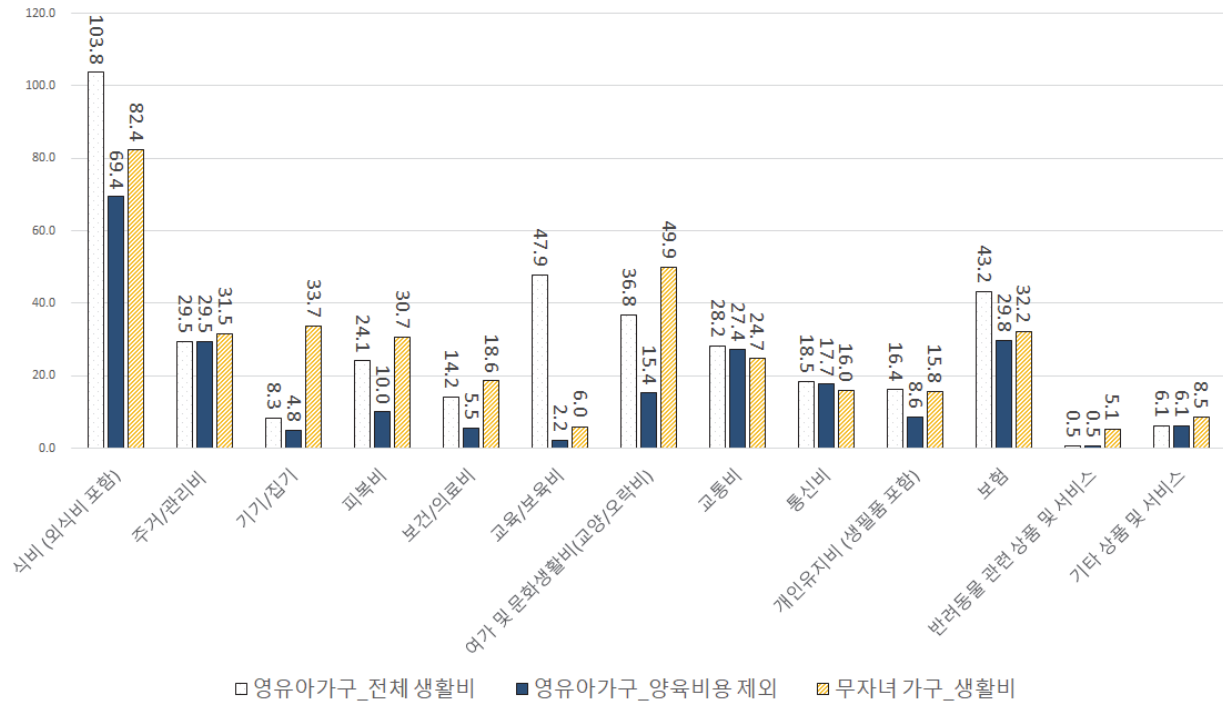
4) 무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가구 생활비 지출액은 성인이 사용한 생활비라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영유아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생활비 지출액에서 자녀 양육에 소요된 비용(=양육비용)을 제외하고 성인의 생활비 지출액을 추가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함. 단, 생활비 비목 중에서 주거/관리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가구 단위의 지출 금액으로 자녀 양육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으므로, 전체 지출액과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은 동일한 금액임.

5) 여가문화생활비에는 가족여행, 관광 및 체험학습, 완구, 도서구매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기기/집기 구매 비용에는 PC, 노트북, 가구, 가전, 운동기구 등의 구매비가 포함됨.

- ▶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성인의 기호 상품(주류, 담배 등)과 가사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비목으로, 영유아자녀 가구의 경우 월평균 6만1천원을 지출하는데 반해, 무자녀 가구는 8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 비교(2023년, 명목비용)

(단위 : 만원)



주: 'KICCE 소비실태조사' 연구에서 생활비 지출액은 상기 비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주거/관리비, 반려동물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양육비용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전체 생활비 지출액과 양육비용 제외 지출액이 동일함.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III 예상 양육비용과 출산의향의 관계

자녀의 성장 단계별 예상 양육비용은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자녀 가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20만원가량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영유아자녀 가구의 영유아기 양육비용은 예상 비용이 아닌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36개월미만 영아의 경우 월평균 71만6천원, 유아기(36개월이상~취학전)는 89만6천원이었음.

- ▶ 무자녀 가구가 영유아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양육비용은 영아기 90만7천원으로 실제 지출 비용 평균에 비해 19만1천원이 높았으며, 유아기 107만원으로 실제 지출비용에 비해 17만4천원 높게 응답됨.
- ▶ 초등학교학령기 예상 양육비용에 대해 영유아자녀 가구는 유아기보다 오히려 4만2천원이 적은 월평균 85만4천원으로 응답했으나, 무자녀 가구는 145만1천원으로 영유아자녀 가구에 비해 무려 59만7천원이나 높게 응답함.

중고등학교학령기 자녀에 대한 예상 양육비용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상승폭이 무자녀 가구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 무자녀 가구가 예상하는 중고등학교학령기 양육비용은 210만1천원으로, 영유아자녀 가구의 141만6천원에 비해 무려 68만5천원이 많은 금액임.

- ▶ 즉,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데, 무자녀 가구에서 영유아자녀 가구에 비해 자녀 양육비용을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

〈표 1〉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용(월평균 예상액) :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단위: 만원, (명, 가구)

자녀 연령	영유아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	
영아(36개월 미만)	71.6	(1,197)	90.7	(817)
유아(36개월 이상~취학전)	89.6	(1,225)	107.0	(817)
초등학생(1~6학년)	85.4	(1,773)	145.1	(817)
중·고등학생	141.6	(1,773)	210.1	(817)

주: 1) 영유아자녀 가구의 영아, 유아 응답 값은 예상액이 아닌 실제 아동 1인당 양육비용 평균값으로, 구분을 위해 음영 처리함.

2) 예상액은 가구 단위로 자녀가 해당 시기가 되면, 월평균 어느 정도에 양육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묻은 문항으로, 가구 단위로 조사된 결과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무자녀 가구의 예상 양육비용은 출산의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님.

무자녀 가구 중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는 출산 의향이 없는 가구에 비해 예상 양육비용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임.

- ▶ 출산 의향이 있는 무자녀 가구는 영아기 89만8천원, 유아기 105만1천원, 초등학생기 144만6천원, 중고등학생기 206만3천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함.
- ▶ 출산 의향이 없는 무자녀 가구는 영아기 92만2천원, 유아기 109만8천원, 초등학생기 145만9천원, 중고등학생기 215만7천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여, 출산 의향이 있는 가구에 비해 예상 양육비용이 약간 더 높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님.
- ▶ 즉, 무자녀 가구에서 출산 의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예상 양육비용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 자녀 1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용(월평균 예상액) :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별

단위: 만원

자녀 연령	출산 의향 있음	출산 의향 없음	t
영아(36개월 미만)	89.8	92.2	-0.47
유아(36개월 이상~취학전)	105.1	109.8	-0.80
초등학생(1~6학년)	144.6	145.9	-0.16
중·고등학생	206.3	215.7	-0.84

주: 전체 무자녀 가구 817가구 중 출산의향이 있는 가구는 483가구, 출산의향이 없는 가구는 334가구임.
자료: 'KICCE 소비실태조사_2023' 원자료.

IV 정책적 시사점

영유아자녀 가구의 가구 단위 지출 비목에 대한 우대 지원 강화 검토

영유아자녀 가구의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해 수도광열비, 교통비, 통신비 등 가구 단위 지출액이 크고, 보험료를 좀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성을 보임.

- ▶ 현재 저소득 가구 혹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수도광열비 등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의 제도가 운영 중임. 이러한 부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유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 한편, 보험료의 경우 현재의 보건의료비 지출과 무관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되어 현재의 소비지출이 커지는 부분으로, 영유아자녀 가구에 대한 장기적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음.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 영유아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영유아자녀 가구는 무자녀 가구에 비해 생활비 지출액은 훨씬 크지만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해 성인에 대한 지출은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임. 이는 영유아자녀 가구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본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양육비용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

- ▶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성인의 지출액을 비교해보면, 특히 여가문화생활이나 개인적 취향을 위한 지출액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영유아자녀 가구 부모들의 자신에 대한 소비지출이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 이러한 소비지출 패턴은 자칫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으로 이뤄진 가정(무자녀 가구)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여,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그간 영유아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주로 양육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나, 영유아자녀 가구 단위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에 대한 지원 혹은 부모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함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 한편, 부모의 여가문화생활 지원은 비용적 측면과 함께 실질적으로 부모가 여가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짐.

양육비용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 자료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무자녀 가구 내에서 출산 의향에 따라 예상 양육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사이에는 예상 양육비용에 대한 큰 편차가 있음.

- ▶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녀 가구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 지출 비용보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또한, 정부의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된 지원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양육비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양육비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혹은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 ▶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된 신뢰할만한 통계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효미 연구위원 hmchoi@kicce.re.kr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101호